

경칩(驚蟄)의 세시풍속



강 육
자유기고기

경칩(驚蟄)은

우수(雨水) 다음에 있는 24절기 중 셋째에 해당하는 절기다. 음력으로는 2월이며 양력으로는 3월 5일을 전후하여 들어있는데, 이 무렵에는 날씨가 따듯해서 초목의 짹이 돌아나며 동면(冬眠)하던 짐승들도 땅 속에서 나온다.

초목에 물이 오르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과 벌레들도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경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른 말로는 ‘계칩(啓蟄)’이라고도 한다.

이날 농촌에서는 논이나 물이 끊 곳을 찾아가서 개구리 알을 건져다 먹는다. 경칩쯤이면 개구리를 은 번식기인 봄을 맞아 물이 끊 곳에 알을 깨놓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 데 좋을 뿐 아니라 몸을 보한다고 해서 경칩일에 개구리 알을 먹는 풍속이 전해 오고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도롱뇽 알을

건져먹기도 한다.

경칩 때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완전히 겨울잠을 깨는데 이를 ‘식물기간’이라 한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한다. 이 때 농촌의 봄은 바야흐로 시작된다. 예컨대 담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는 등 농사가 본격화된다.



씨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의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2월이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준비하기에 바쁘다. 농사가 잘 되어야 한 해를 근심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의 시작인 초경(初耕)을 엄숙하게 행했다.

초경 땅에는 소를 동쪽으로 향해 세워놓고 멍에를 썼운다. 밭이 남북으로 길게 있으면 쟁기질도 남북으로 하지만, 이때에는 먼저 동서로 몇 골 간 다음에 남북으로 간다. 초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일 년 풍작을 비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풍속이다. 그래야만 밭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이 된다고 믿어왔다.



동지로부터 81일이 지나면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는데 81일을 9일 단위로 나눠($9 \times 9 = 81$) 농부들은 구구가(九九哥)를 불렀다. 구구가는 긴 겨울동안 농사를 손놓아 게을러지는 것을 추스리고,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농사시기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그 중 아홉째 마지막 경칩 부근의 노래는 “밭가는 소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해서 ‘구구경우(九九耕牛)’라 불렀다.

경칩일에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일년의 농사를 예측하며, 단풍나무를 베어 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위장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먹었다.

또한 경첩에 토역(土役: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흙벽을 바르는 지방도 있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면 빈대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장을 집에서 담가 먹었다. 이 때쯤이면 농가에서는 장 담그기를 한다. 장 담그는 일은 가정의 일년 농사라 할 만큼 중요하다. 훌륭한 장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의 선택과 주부의 손끝 정성에 있다.



우선 잘 씻어 말린 장독에 메주를 넣고, 체에 받쳐 거른 소금물을 메주가 잠길 정도로 붓는다. 그리고 고추, 참숯 등을 넣는다. 고추의 붉은색은 악귀를 쫓는다고 해서, 참숯은 살균작용을 하기에 꼭 넣는다. 장을 담근 장독에는 잡귀가 들지 못하도록 윈새끼를 꼬아 솔잎, 고추, 한지를 끼운 금줄을 쳐 장맛을 지켰다. 반찬이 변변찮던 시절, 농가에서는 맛의 근원이었던 장을 무척이나 아꼈다.

날이 완전히 풀리는 경첩 때가 되면 겨우내 인분이 쌓인 변소를 푼다. 인분은 직접 논밭에 뿌리기도 하지만 집 한켠에 쌓인 퇴비더미를 파고 묻어서 몇 달간 잘 썩은 거름을 파내어 논밭에 내었다. 퇴비더미를 ‘두엄’이라고 하는데, 두엄은 인분 또는 외양간에서 나온 쇠똥, 돼지우리에서 나온 돼지똥, 염소똥, 낚똥, 누에똥 등 각종 찌끼가 섞인 거름으로 주재료는 역시 똥이다.



금비(金肥)를 양약이라 한다면 퇴비는 한약이다. 농토에 보약 같던 퇴비는 지력을 높이는 성질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퇴비 만들기에 열을 올린 이유도 바로 지력 증진을 통한 생산량 향상에 그 이유가 있었다.

실학자 연암 박지원도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 퇴비가 농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금비는 질소, 인산, 가리로 대변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금비가 없었기에 퇴비와 똥, 아궁이의 재(灰) 등을 농사에 이용하였다. 그것도 부족해 땃물조차 거름으로 만들고, 오줌도 아무데서나 누지 말고 꼭 집에서 누도록 했다.

음력 2월 초순에 ‘나이떡’을 해먹는 세시풍속도 전해온다. 2월 초하룻날은 온 식구의 나이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한 살이면 한 숟갈, 20살이면 20숟갈, 이렇게 합한 숟로 잘게 송편을 빚어 그 나이에 해당한 만큼 먹는다. 스무 살이면 이 송편을 스무개 먹어야 한다. 이것을 세병(歲餅) 또는 수복떡(壽福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온 집안이 무병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이다.



봄이 오는 시점은 가히 연인들의 계절이다. 이는 동서고금이 다 그러하다. 고대 로마에는 2월 보름께 ‘루페르카리아’라는 축제날이 있었는데, 짧은 아가씨의 이름을 적은 종이 쪽지를 상자에 넣고 동수(同數)의 짧은 총각으로 하여금 뽑게 하여 짹지어 주는 사랑의 풍속이 있었다. 오늘날의 발렌타인데이(2월 14일)도 봄이 오는 길목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은밀히나마 연인의 날이 있었다. 벌레들이 겨울 잠에서 놀라 깨어난다는 바로 경칩날이었다. 그야말로 신토불이 발렌타인데이인 셈인 것이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써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기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36
Fax : 02)3274-2009
E-mail : enyouho@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2월호
(통권 제 38 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변성원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흔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2월 일

디자인·인쇄 금성문화사 (02-2263-4906~7)